

제16회 신인춤제전

점고푸른 **기쁜** 한마당

점은춤 (강정일, 왕정희, 김시현, 김영찬, 이선아, 서한나, 신상규, 김정은, 정혜림)

2010년 3월 19일(금) 하오 7시 30분
20일(토) 하오 5시

푸른춤 (이선영, 현선화, 이지은, 김옥희, 이은혜/정지혜, 김현주, 김동희, 김초슬, 이희림)

2010년 3월 20일(토) 하오 7시 30분
21일(일) 하오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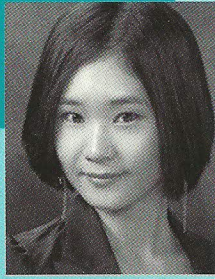
- 장소 : 민주공원 작은방
- 주관 : (사)민족미학연구소 ☎ 051-513-5898
- 주최 : (사)민족미학연구소, 민주공원 ☎ 051-790-7400
- 후원 : 부산문화재단, (사)부산민예총, 부산민예총 춤위원회
- 문의 : 010-2434-4466

※ 본 공연은 2010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본 공연은 사랑티켓 참가작품입니다.

젊은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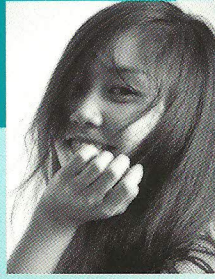
3월 19일(금) 하오 7시 30분
20일(토) 하오 5시



벗어나다

- 안무 : 정혜림(경성대 졸)
- 출연 : 정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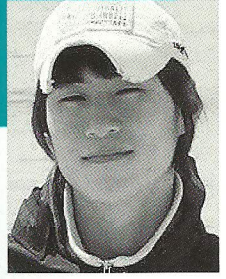
내 안에 잠식하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또 다른 방향의 시작을 위해...



입 속의 검은 잎

- 안무 : 김정은
(부산대 졸/브이슈 발레단)
- 출연 : 신선경, 김정은

나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
하지만 그 경우
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꿈꾸어야 한다
단 한 줄일 수도 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 기형도의 오래된 서적 중에서



흔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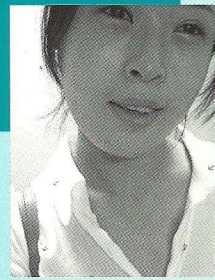
— 한 아이의 '행복울음'
(Good : 행복)

- 안무 : 신상규
(경성대 졸/KS무용교육원)
- 출연 : 신상규

생각들이 지나다니는 어느 공간 속
한 아이의 '울음'
아이가 원하는건 '행복'
과거 사람들의 생각충돌 속에 남겨
한 아이의 'Good' 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푸른춤

3월 20일(토) 하오 7시 30분
21일(일) 하오 5시



spontaneous combustion

- 안무 : 이희림(부산대 졸)
- 출연 : 이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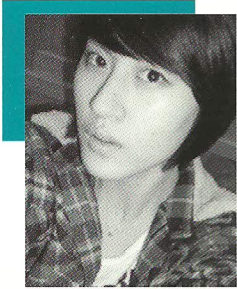
타오르듯 싹이 트기에
물을 조금 주어
이 몸을 적셔주세요



이름 없는 길을 걷다

- 안무 : 김초슬(경성대 졸)
- 출연 : 김초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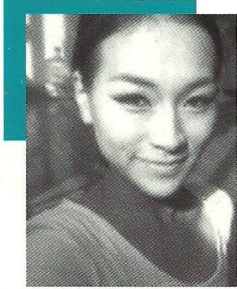
처음엔
어딘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름없는 그 길을 걸어봅니다.



Narcisse

- 안무 : 서한나
(부산대 줄/자유무용단 연구단원)
- 출연 : 서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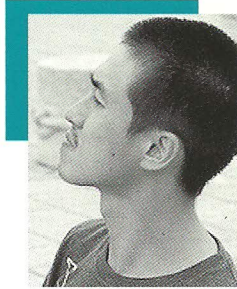
나의 환상...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을 잡다

- 안무 : 이선아(창원대 대학원)
- 출연 : 이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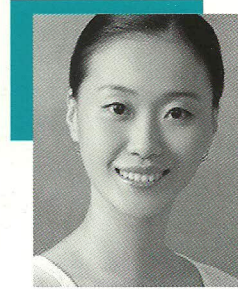
드디어...
시간을 잡을수 있었어
내가 놓아버린 후부터.



위험한 생각.... "일상"

- 안무 : 김영찬
- 출연 : 김영찬

사람들은 대부분
똑 같은 일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살아간다.
자신의 그 일상들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들일까...



75분의 1초

- 안무 : 김시현
(부산시립무용단/현대무용단 춤 단원)
- 출연 : 김시현

당신은 찰나를 꿈꾸는가?
당신은 찰나를 즐기는가?

진



고리

- 안무 : 김동희(경성대 줄)
- 출연 : 김동희

살아있음은
과거와 미래로 나아가고
과거와 미래를
현재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무수히 변화하고 혼돈한다.
썩은...
순환적 확장이자
파장의 '고리' 이다



뛰는 놈 위에...

- 안무 : 김현주(창원대 대학원)
- 출연 : 구은혜, 김수정,
김혜영, 김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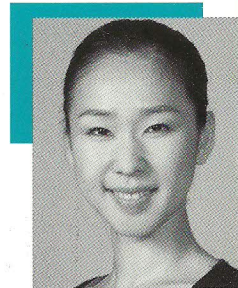
조심해
보이는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속고, 속이고, 속았다...

- 안무 : 이은혜/정지혜(대구 카톨릭 대학교)
- 출연 : 정지혜, 이은혜

Part1.(이은혜)
세상 사람들이 아닌척하며
나를 속이고 나도 그들을 속인다.
Part2.(정지혜)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녀는
그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속이고 속이고...
미쳐간다.



새빨간 모자

- 안무 : 김옥희
(창원시립무용)
- 출연 : 김옥희

너는 뜨거운 열정과 순
진실성이나 진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새빨간 모자 하나
풍성해진 나를 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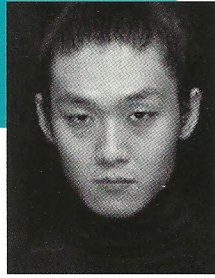


마중

- 안무 : 왕정희
- 출연 : 왕정희

춤을 앓고,
땀을 걷어내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대를...
만나러 갑니다.



인간이 감출수 없는 3가지 episode

- catch a cold-

- 안무 : 강정일(휘 DanceTeater 대표)
- 출연 : 신상현, 손영일, 김평수, 강정일

너와 나 '사이'에
가날프게 떨리는 바람의 '기억'을
이해하기 위한 몸부림은
서늘한 골방에서 앓고 토하던
기침의 '소리'
내 눈자욱에 남는 눈물 몇방울...

연출 김미현 (동아방송예술대 연극과 교수)
무대 이상현 (무대미술가)
조명 권성훈(국립부산국악원), 조대식(민주공원)
음향 강소정
사진 이장수(사진가), 박희진(동주대학 방송사진영상과 교수)
디자인 김정희(그래픽디자이너)
영상·홍보 김경희(국립부산국악원)
무대감독 이윤희(민족미학연구소 사무차장), 이주영
진행 안주현
프로그램머 임현미(연분홍 예술감독),
김윤규(트러스트 무용단 상임안무가),
이성원(부산민예총 출위원회 위원장),
김미란(부산대박사과정),
신호영(부산대 박사과정),
안주현(출판 배김새 기획),
장오(무용정보사이트 이상댄스 운영자)
총기획 최찬열((사)민족미학연구소 기획위원)



“그와 놀기” (뒤같은 사랑 그후)

- 단/새얍 춤 단원)
- 안무 : 이지은
(한예종 창작과 예술전문사 졸)
 - 출연 : 김정섭, 이지은
 - 연주 : 이동진

수에 대한

면
이니...

오다. 가다. 만나다.
그 후,
..... 꽃을 꽃았다.
사랑에 대한 환상을 꿈꾸던 내가
나의 이야기를 꺼낸다.
개와의 사랑.
내가 왜 꽃을 꽃았나...



미운오리(어느 백조의 노래)

- 안무 : 현선화(창원시립무용단)
- 출연 : 현선화



boiling point — 소환된 사람들

- 안무 : 이선영(트러스트 무용단)
- 출연 : 구선진, 서진욱, 신소빈, 이선영

침묵의 시간으로 소환된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
그들을 기다리는 시간.

역동적인 판으로 미적 삶의 창조적 향수체험을

채 희 완(민족미술연구소 소장, 출판론가)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손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의 완성은 향수자, 곧 감상자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술작품을 가운데 두고 한 쪽은 예술가의 창조작업이, 또 한쪽은 향수자의 수용작업이 벌어집니다.
이들 창작과 향수 중에서 여태까지는 예술가의 창작행위를 가장 중요하고 능동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상자의 향수행위는 부차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본 것이지요.
이제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수체험, 곧 감상체험이야말로 창작자의 창작체험을 뒤쫓아서 추체험하는 것이 동시에,
향수자가 작품을 대상재료로 해서 나름대로 이를 재창조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수용미학이라 하지요.
독자가, 청중이, 관객이, 작품을 받아 자기화하고, 재해석하고,
드디어 또다른 하나의 창조적 이미지를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용자의 몫을 더욱 강조하여 이들로 하여금
창작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작품생산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적 상호침투적 인터랙션의 표현방식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때 향수자는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예술가는 연행자,
예술기획자, 예술홍행사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리해서 예술창조와 향수는 동시진행되어
하나의 작품은 결국 유동하는 '한 묶음의 과정'(a series of process)이 됩니다.
우리의 전통연행이 그러하듯 하나의 마당(field), 또는 판이 벌어지고,
이 판은 문화복합의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한 판이야말로 연행예술의 진면목이자 모든 예술이 이미 그러하듯
살아있는 창조적 향수의 체험현장입니다.
하나의 판으로서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공동초대되는 예술기획, 예술제도 속에서
미적 삶의 체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일찌기 동양에서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란 예술가에서도, 감상자에서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세월의 풍상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답니다.
끝내 '미완성의 것'이나 그럼에도 예술의 역동적인 판은 지금 이곳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의식이 한 몸뚱아리를 이루어 세상을 먼저 알아채고 세상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러한 육체적 사유의 산물인 춤이 지금 이곳에서 오래된 역사적 세월의 풍상을 이끌어냅니다.
오늘의 젊고 푸른 춤들이 이 작은 출판에서도 관객과 함께
역동적인 미적 삶의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완성되어 가길 축원합니다.

2010. 3. 19.

